

사찰 환자 GoldenTime 우리가 지킨다

응급구조 실습인형에 초당 2회의 흉부압박을 계속하자 건장한 스님들조차 의외로 힘이 든다고 했다. 이런 푸념도 잠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에 스님들은 힘차게 압박을 계속했다. 1월 24일 조계사가 사찰 최초로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스님들이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심장 정지가 집안에서 발생할 확률이 20%, 집 밖에서 발생할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즉, 우리와 우리 가족의 심장정지가 일어난다면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다른 이를 돕기 위한 생명구조법을 익히는 것이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 패치를 붙인 여성 소방관의 모습을 보며 신기한 듯 웃음을 보였던 스님의 표정이 이내 진지해졌다. 그 진지함은 금새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듯 하다. 이어진 실습에서 소방관에게 정확한 방법을 다시 묻는 스님들의 눈에는 결연함까지 엿 보였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24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조계사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종로소방서 이성숙 홍보교육팀 소방관을 비롯해 홍승택 소방관, 홍향선 시민안전파수꾼 등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 사용법,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 안내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불교계에서는 심정지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 찾는 사찰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다. 조계사는 지난해 종무소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은 사찰 최초로 진행된 것이다.

"심장제세동기가 있다면 심폐소생술보다 우선입니다. 심폐소생술이 골든타임을 연장한다면, 심장제세동기는 다시 살리는 기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이성숙 소방관이 전원을 키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자 지시가 흘러나왔다.

"패치를 부착하십시오."

이 소방관이 직접 몸에 패치를 붙이자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제세동기를 실시하세요." 음성과 함께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란 안내가 나왔다.

"만약 환자의 몸에 붙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신의 심장에 부정맥이 생겨, 환자 옆에 함께 누우실 수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 환자 몸의 물기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털이 많은 경우 털도 제거해야 합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잠시 뒤 전류표시의 버튼을 누르자 "삐" 소리와 함께 심장충격이 실시됐고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일반적인 안내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전달됐다.

"갈비뼈는 당연히 부러집니다. 수십 차례 교육을 받고 실습하는 구조대원도 갈비뼈를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는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기에 감수하고 열심히 실시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혹여 환자가 응급처치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응급처치 과정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없어요. 두려워 마세요."

"여성의 경우 흉부 압박에 앞서 가슴 노출 등으로 인한 성추행을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굳이 옷을 벗기실 필요는 없고, 정확한 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세동기 사용의 경우에는 옷을 벗겨야 하는데, 주변에 응급조치임도 함께 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진 실습에서는 스님들을 비롯한 참석 대중이 실습용 인형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사찰에서는 흔치 않은 교육이기에 배움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차례 씩 진행되는 실습을 수차례 반복하는 스님부터 수첩에 빼곡히 응급처치 방법을 적는 종무원까지 모두가 열심이었다.

조계사 교육국장 승묵 스님은 "심정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출가 이후 처음"이라며 "최근 추운 날씨에 사찰을 찾는 어르신들이 걱정이 됐다. 사찰이 찾는 이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쓴다는 것 만으로도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평소 조계사 자동심장충격기를 봐왔다는 선정화 안순일 씨는 "만약 조계사에서 누군가 쓰러진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 사용법도 정확히 익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오늘 배운 응급처치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그 자체로 생명살림"이라며 "사찰은 고령의 신도가 많아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교계에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1월 24일 스님 · 종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심폐소생술 실습에서는 봉사자 교육도 진행됐다.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이성숙 소방관.



스님들이 심폐소생술 설명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잠깐! 사찰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1.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심장정지의 경우 쓰러지며 머리 충격의 가능성이 있기에, 머리 외 어깨 등을 쳐서 의식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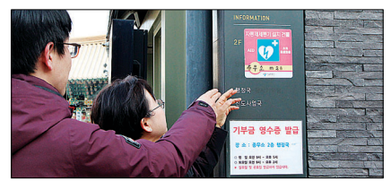
2.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한다. 호흡은 실제 호흡 유무와 상관없이 평소 호흡기조로 정상처럼 보일 수 있다.

3. 119의 지시에 따라 호흡 상황 등을 체크 한 후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압박점은 가슴 명치 부분이다.

4. 압박점 5cm를 1초에 2번 눌러야 한다. 30번 가슴 압박 후 이마를 누르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한다. 코를 잡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날숨이 나올 수 있게 코를 놓는다.

5. 2016년 119구조대가 4분 안에 도착한 경우는 전체 사건의 54%였다. 첫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주변의 응급조치 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6.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한 곳이라면 119 신고 후 심정지 상황에 대해 이를 사용한다.



조계사 종무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